etnews.com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기존보다 2~3배 효능 좋은 C형 간염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2014년 0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개발한 히알루론산 기반 C형 간염 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을 신풍제약에게 기술 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C형 간염 치료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페가시스, 미국 머크사의 페그인트론과 같은 페길화 인터페론을 리바비린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페길화 인터페론은 체내 투여 시 혈관을 따라 간 이외에 다른 장기로 전달돼 간에서의 치료효능이 낮고 반복해서 투여하면 탈모, 빈혈, 폐부종 등 다른 신체장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페길화 인터페론에 비해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어 다른 신체장기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동물실험 결과 현재 사용되는 C형 간염치료제 페길화 인터페론보다 2~3배 좋은 효능을 보인다.

한세광 교수는 “본 기술이 상용화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C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C형 간염치료 외에도 간경화 ,간암 등 간 질환에 특화된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포항공대 한세광 교수팀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단계별 정액 기술료 5억원에 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행됐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Copyright©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